

brilliant 30: 작가 손종준

사회적 문제를 예술로서 풀어나가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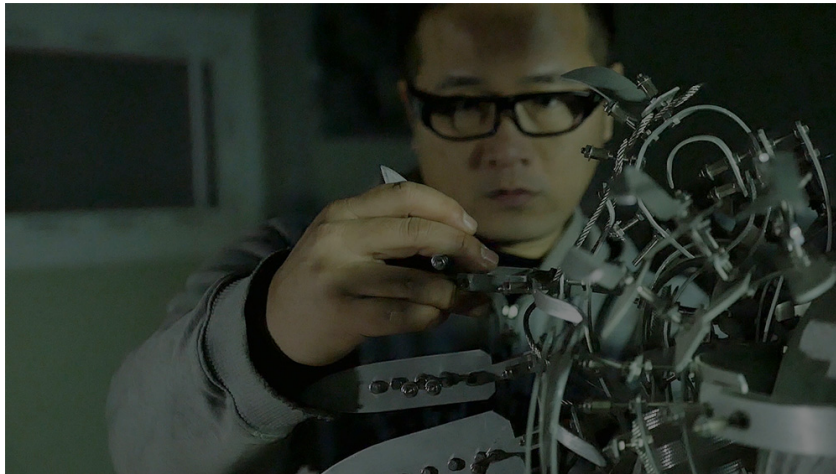
손종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예술로 상기하다

예술은 사회를 반영합니다. 손종준 작가는 이 명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증명합니다. 그의 주요 작품인 자위적 조치(defensive measure) 시리즈는 사회 도처에 존재하나 우리

기계문명이 야기한 사회문제를 기계를 통해 보호해야 하는 현실은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인공적 기계장치를 얻은 작품 속 인물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가 있거나 외면한 사회적 약자들을 환기합니다.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달은 기계로 가득한 화려한 사회의 외관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성 상실과 정신의 물질화를 가속시키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이 지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외부의 유,무형적 공격으로 생긴 개인적 콤플렉스를 치유 대신 자신의 보호색을 형성하여 은폐합니다. 손종준은 사회가 온전히 품지 못한 문제를 예술적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금속 중에서 약한 소재로 분류되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방어기계장치를 고안하여 억압기제가 작동하는 대상에게 상징적 형태의 '정신적 갑옷'을 장착합니다. 금속의 갑옷을 입은 인물들은 접촉과 소통의 부재가 안겨준 불안감에서 독립된 사이보그 신체를 경험합니다

작가와의 대담



래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처연합니다.

예술가가 사회와 호흡할 때 비로소 예술은 새롭고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작가의 역할을 사회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가로 규정한 손종준은 시대의 모순과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가 아닌 정제된 작가적 시선을 통해 제안합니다. 동시대 예술이 개념만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손종준의 작품은 예술이 지녀야 할 본령에 대해 다시 한번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Q. 본인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작품을 소개하는 데 효율적일 듯합니다. 우선, 작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섭외합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일정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 각자의 콤플렉스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콤플렉스를 감추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데 적합한 형태의 '맞춤형 갑옷'을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구상한 디자인은 작업실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그 대상의 신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품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런 '맞춤형 갑옷'을 제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우는 이들에게 그들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갑옷'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지금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었고 저 역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작품에서 대상은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품의 대상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녀, 그리고 학교에서 심한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제일교포 3세 여고생,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는 오타쿠 등이 저의 작업의 주요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꾸준히 해오던 어느 순간,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작품으로 제안한 나는 이들과 다른 사회적 강자인가?라고 자문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 작품의 대상은 특정대상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누구나 권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회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Q. ‘작가 손종준’의 작품은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우선, 저의 작품은 직접적인 사회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작품으로 제안하고 그 작품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치열한 사회라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도구가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지금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고 저 역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주요작품의 제목인 <자위적 조치(Defensive Measure)>란 단어가 생경합니다. 이것이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위적 조치의 영문인 'Defensive Measure'는 주로 미군의 군사적 방어조치와 관련한 명령체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어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작품에 적용하였습니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방어도구가 절실할 것입니다. 저는 '자위적 조치'라는 인공적인 방어기계장치를 그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신체부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신체와 기계가 결합한 일종의 사이보그의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진정한 소통과 위로가 부재한 사회에서 정신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는 상징적 형태의 갑옷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Q. 동시대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의 예술가는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술작품은 작가적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사회의 단면을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은 관객에게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제안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Defensive Measure 0010. 2006. 디지털 프린트. 110 x 73cm

Profile



손종준은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일본 타마미술대학교 대학원 미술연구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작가로 인간성의 획일화와 개인주의 풍토가 만연한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인간성의 물질화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을 자위적 조치(defensive measure)라는 방어기제장치로 재현하여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Nomadic Navajo>(서울문화재단 홍은예술창작센터, 2013), <Defensive Measure>(쿤스트독 갤러리, 2013), <Defensive Measure>(갤러리 ZERO HACHI, 일본 도쿄, 2009)를 비롯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59.15%/yr>(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 <공간을 점령하라>(갤러리 정미소, 2014), <INTRO>(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 <입체조형 - 외국초대작가선정>(JARFO, 일본 교토)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고양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로 화려한 그의 경력이 보여주듯 한국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brilliant 30 Next: 작가 이가진



<Waterdrop>

세라믹. 16.6(h)x34x34cm(좌), 23.5(h)x35x35cm(우). 2012